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敎新聞

대승투어 daeseungtour 신심깊은 불자들의 여행사 여법한 순례 품격있는 여행 ☎ 1577-0206 www.대승투어.com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9월 12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7월 26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47호 수

대북수해 지원으로 남북 경색국면 '돌파구' 마련한다

▶기획 조계종 '긴장완화' 분위기 조성 기대

5·24조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종교계와 민간을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51개 대북 인도지원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24일 개성에서 북측 민화협과 북한수해지원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밀가루와 의약품 등 수해지원 물품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대북수해 지원을 위한 물품 반출을 승인한 만큼 앞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수해 지원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조계종에서도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대북수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는 8월 북한의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불교도연맹에 실무협의를 제안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9월중으로 대북수해 지원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5000만원 상당의 식량, 생필품, 의약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8월29일 제3차 이사회에서 9월 중순경 7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자고 결의하면서 불교계 대북수해 지원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대북수해 지원 노력은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조계종은 남북불교교류에 앞장서며 경색 국면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왔다. 정부가 대북교류 전면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하며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해왔다. 무산되기는 했지만 조불련 대표단의 봉축법요식 초청을 추진한 일을 비롯해 8·15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등 경색 국면 속에서도 끊임없이 남북불교 교류를 시도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대북 지원이 없이는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힘든 상황이지만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대북수해 지원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했다. 우상호 민주당 최고위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영주 KNCC 총무,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왼쪽부터) 등 많은 사회 인사들이 참여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금강산 관광 재개돼야 한다"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상임대표 자승스님
민간차원 대안 '주목'

지난 2008년 이후 전면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북 경제협력 기업 등이 처음으로 나섰다. 4년 넘게 관광이 중단되면서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 지역은 경제적 파탄으로 170세대가 넘는 이혼가정이 생겼고, 현대아산 직원 13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이 가운데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종교계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원도 등은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단체는 앞으로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과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안 마련, 피해기업 실태조사, 관광 재개를 위한 국민 참여 행사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이른 시일 내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으로 국제평화콘서트 개최 등 남북한 공동행사를 위해 북측과의 접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상임대표로 추대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남북이 서로 다투는 불행의 역사를 끝내고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했다. 자승스님은 "남북 당국이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해결점을 찾는데 미진하다면 이제 민간이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결코 몇몇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는 관광이 중단된 동안 10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재개를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금강산 관광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관광 재개를 위해 우선 남북이 조건 없는 만남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단체 주도로 시작된 관광재개 운동본부의 움직임이 남북 관계 개선에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템플스테이 도쿄박람회 참가

문화사업단 19~23일
'33관음성지' 도 홍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스님)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세계여행박람회(JATA)에 참가해서 우리나라의 템플스테이를 알리고 33관음성지순례를 홍보할 방침이다. 아시아 지역 템플스테이 참가자 확대와 33관음성지 순례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박람회의 참석은 "현지 여행사 대상 템플스테이 · 33관음성지 순례사업 홍보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한류 관광객의 템플스테이 유도와 일본인 대상 순례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지난 4일 문화사업단측은 밝혔다.

19일 도쿄 뉴오타이호텔에서는 일본 현지 여행사 관계자 30명과 한국관광공사 지사장 외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템플스테이는 물론 연등축제와 사찰음식 등 한국불교 문화상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어 20일부터 23일까지 도쿄 빅사이트 동(東)전시홀에서는 홍보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현지 여행사와 참가단체의 1:1매칭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템플스테이 시설지원 사찰 가운데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정기로 운영하는 사찰 6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사찰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인력배치와 정기운영 등 운영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사찰에 대해 상응한 조치와 정상운영을 권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社告

하바리 만해학교! (안녕)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불교신문사는 마사이족 거주지인 케냐 카지아도주 올로이토이톡 지역에 만해학교 건립 모금 공동 캠페인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께서는 만해스님이 남긴 인류평화의 큰 뜻을 선양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해평화대상 상금 5000만원 전액을 만해학교 건립 기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어린이 교육 사업을 통해 희망의 대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2년 9월1일 ~ 12월31일
- 건립액 : 1억 2000만원
- 목표액 : 5000만원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3409-0303

불교신문사

'백양사 문제' 종법대로 정리

주지직무대행 진우스님 '100일 참회정진' 선언

시몽스님 '직무정지' …재무 등 7직 전원 '면직'

종단 집행부의 발 빠른 결행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백양사 문제가 일단락되는 수순이다.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 총무원장)는 지난 6일 고불총림(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시몽스님에 대해 종헌종법과 종무지침, 특별감사 거부 등의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아울러 재정실무를 총괄한 재무국장 보연스님을 비롯해 7직 국장 스님 전원이 면직됐다. 이와 함께 중앙징계위 결정 직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백양사 주지 직무대행에 진우스님을 임명했다. 검수인계를 마친 진우스님은 '100일 참회정진'을 선언하고 종무 정상화에 착수했다. ▶진우스님 인터뷰 4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개정된 종무원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설치된 기구다. 특히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면직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라도 즉각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공직자 개인이나 개별 사찰의 흠결이 종단 전체의 손실과 위상 추락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중앙징계위는 직무정지 결정의 주된 이유로 비정상적인 종무행정을 들었다. 재정의 불법전용 및 편법집행 등의 잘못이 총무원의 특별감사로 확인됐다. 총무원 기획실 감사팀은 지난 8월30일 △2012년 수입지출결의서 및 종무회의 결의록 전체 누락 △사중에 임의로 설치한 불법적 '원로회의' △종단의 합법적인 종무명령 거부 △미승인 재산임대 △미승인 토지사용 승낙 △문화재구역입장료 예치금 미승인 사용 △토지처분적립금 미승인 사용 등 주요 종법령 위반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총무원은 징계와 별도로 민형사상의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주지 직인 교체와 백양사 거래은행에 대한 지급정지는 이미 단행한 상태다.

시몽·보연스님 '제적'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세영스님)은 7일 제95차 심판부를 열어 시몽스님과 보연스님에 대해 '제적'의 징계를 결정했다. 시몽스님에 대해선 제적과 함께 변상금 813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7명의 도박사건 관련 스님들에 대해선 사건을 병합해 다음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장영섭 허정철 기자

지면안내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 9월15일 접수마감 2면

'아이돌' 스타 수지 절밥에 꽂히다 12면

혜민스님 저서 '멈추면, 비로소…' 최단기 100만부 돌파 15면

辭　令

이 시 영 ⋒ 충청지사장

2012년 9월 5일자

불교신문사